

광주시, '골목상권 경영자금' 1,400억 펀다

신보·은행권 특례보증 협약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대출
강 시장 “든든한 버팀목될 것”

광주시가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 등 올 한해 모두 1,400억원의 경영자금을 펀다.

광주시는 20일 “500억원 규모이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1,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1,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원, 6개 은행 35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



강기정 광주시장(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

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

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3월 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강기정 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 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집중점검

24일까지 숙박·임금 등 조사

전남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근무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도, 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조사·점검 이후에는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농촌 일

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전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업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 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시와 고흥군에선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최단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정근산 기자

기획서 만들 전담팀을 꾸리지 못해서...

전남도립대, 공모 포기 빈축
협업 담양군에 “내년에 하자”

전남도립대학교가 전담팀을 꾸리지 못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기로 한 정부 공모사업을 포기해 경쟁력 강화에 아예 손을 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립대와 담양군 등에 따르면 도립대는 지난 1월 대학교육 혁신성과 확산 공유회를 열고 대학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립대와 담양군, 담양군의회는 협약을 통해 지역혁신 연계 협력사업 발굴, 지역인재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립대는 특히 교육부에서 확대 예정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등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도립대는 담양군으로부터 자료

를 받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1유형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2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15개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총 사업비 810억원(국비)을 지원해 대학 입학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남도립대는 3년간 18억원 상당의 국고 지원과 지방비 2억원 지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해 재정은 물론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담양군은 농업스마트 플랫폼, 정원산업 육성, 6차 관광산업 육성 등을 도립대에 협업 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된 시도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의 방향성 등은 결정이 됐지만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팀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류 마감 10여일을 앞두고 도립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관련 내용을 담양군에 알리면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도립대는 직업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HiVE 2유형)의 경우 아직 접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전남도, 순천제일대학교 등과 함께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HiVE 2유형은 전남대학교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립대 측에서 사업 일정이 촉박해 HiVE 1유형보다는 2유형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HiVE 1유형의 경우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는 20일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예내리,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를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 가격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

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근산 기자

양혜령, 국힘 광주시당 지역발전특별위원장 위촉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사진)이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발전특별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0일 “양혜령 전 시의원을 지역발전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양 전 시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숙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정장 후보로 출마해 호남에서 출마한 국힘 후보자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양 전 시의원은 “대인시장 주변도로와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용지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고 아시아문화

전담 및 총장으로 급남포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전담 및 총장으로 급남포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광주시가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시민 편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정참여형 ▲청

년참여형 ▲지역참여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광주시 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일자리·창업·교육 등 10억원 이하 사업, 지역참여형은 자치구 소관 사업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길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